2022년 10월 16일
금문교회 주일예배 GGPC Sunday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The word that came to Jeremiah from the Lord: 2 “Stand in the gate of the Lord's house, and proclaim there this word, and say, Hear the word of the Lord, all you men of Judah who enter these gates to worship the Lord. 3 Thus says the Lord of hosts, the God of Israel: Amend your ways and your deeds, and I will let you dwell in this place. 4 Do not trust in these deceptive words: ‘This is the temple of the Lord, the temple of the Lord, the temple of the Lord.’
5 “For if you truly amend your ways and your deeds, if you truly execute justice one with another, 6 if you do not oppress the sojourner, the fatherless, or the widow, or shed innocent blood in this place, and if you do not go after other gods to your own harm, 7 then I will let you dwell in this place, in the land that I gave of old to your fathers forever.
예레미야 Jeremiah 7:1-7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존귀하신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사 말씀하신 모든 경고를 바르게 깨닫게 하옵소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Be Astounded and Perish!
사도행전 Acts 13:39-41

39.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And by him everyone who believes is freed from everything from which you could not be freed by the law of Moses.
40.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Beware, therefore, lest what is said in the Prophets should come about:
41.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Look, you scoffers! Be astounded and perish! For I am doing a work in your days, a work that you will not believe, even if one tells it to you.

오늘 본문은 바울(Paul)이 비시디아 안디옥(Antioch in Bisidia)에서 실시한 설교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설교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렀습니다. 소위 “구원역사”(history of salvation)를 선포한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 받는 것입니다.

>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 I do not nullify the grace of God, for if righteousness were through the law, then Christ died for no purpose.
> 갈라디아서 Galatians 2:21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써 온 인류를 구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이 은혜로써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율법에 머물렀습니다. 스스로를 옳다고 했고, 다른 이들을 정죄했습니다.

바울은 선지자들이 경고한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박국 Habakkuk 1:5입니다.

>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 Look, you scoffers, be astounded and perish. For I am doing a work in your days, a work that you will not believe, even if one tells it to you.
> 사도행전 Acts 13:41

하박국이 선포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 Look among the nations, and see. Wonder and be astounded. For I am doing a work in your days that you would not believe if told.
> 하박국 Habakkuk 1:5

바울은 그의 설교 결론부분에서 하박국 Habakkuk 1:5를 약간 수정하여 인용한 것입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는 바울이 추가한 내용입니다. 마치 신명기 5장에서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의 서문과 명령 배경을 수정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 멸시하는 사람들아!
> You scoffers!

과연 모든 예언자들이 증거 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나 영접하지 않은 그들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 했습니까? 첫째로, 예언자들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다!”(I am!) 라고 선포하심으로써 말씀이신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또한 셋째로, 복음전도자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 멸망하라!
> You shall perish!

이 또한 사도 바울이 추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 대신에 영생을 얻습니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 요한복음 John 3:16

이 말씀에 이어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들(the Chaldeans, that bitter and hasty nation)을 일으키셔서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들은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과 같다(they fly like an eagle swift to devour)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박국의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박국의 호소를 들어 보십시오:

>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오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 O Lord, how long shall I cry for help? And you will not hear? Or cry to you, “Violence!” And you will not save? Why do you make me see iniquity. And why do you idly look at wrong? Destruction and violence are before me. Strife and contention arise. So the law is paralyzed, and justice never goes forth. For the wicked surround the righteous. So justice goes forth perverted.
> 하박국 Habakkuk 1:2-4

이런 호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 응답의 앞부분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의 설교의 결론으로 삼은 것입니다.

시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예고하셨던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율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 선지자 하박국은 부르짖습니다.

> “어느 때까지리이까?”
> How long shall I cry for help?
> 하박국 Habakkuk 1:1c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강포”(violence, Habakkuk 1:9a)이었습니다. 강력하고 사나운 나라 바벨론을 일으키사 예루살렘을 파괴하신 것입니다. 그 강포는 오늘 바울 설교에 나타난 “멸망”입니다.

이제 로마시대입니다. 바벨론(Babylon)과 페르시아(Persia), 그리고 헬라(Greece)를 거쳐

로마(Rome)의 식민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패역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들의 패역과 죄악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박국 같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고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봅니다.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권력을 추구합니다. 우상숭배가 온 땅에 퍼졌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종들은 부르짖습니다. "주여,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이렇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성전설교"를 목회기도 때 묵상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서서, 거짓으로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이미 파괴된 실로처럼 만드실 거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유럽의 교회가 관광 상품으로 전락했습니다. 세속화의 물결에 추풍낙엽이 되었습니다.

미국 땅에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학교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질만능 세속화의 물결이 미국에 덮쳤습니다.

한국에서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신학교가 지원자가 급감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위기입니다.

제3세계를 내다봅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남미. 교회에 대한 환난과 핍박이 심합니다. 안으로 부패와 밖으로 핍박이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성도는 부르짖습니다.

> "주여, 어느 때까지?"
> How long, O Lord?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주신 말씀처럼 그 약속은 소망입니다.

>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 Behold, I am coming soon, bringing my recompense with me, to repay each one for what he has done.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the first and the last, the beginning and the end.
> 요한계시록 Revelation 22:12-13

예수님의 임재는 소망입니다. 초림 때 "임마누엘" 하셨던 주님께서 재림 때도 함께 하십니다.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십니다. 보십시오. 그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새 창조는 이전 것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작업"이 먼저 실시된 이후의 일입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장면을 상기합시다.

>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 See! I have set you this day over nations and over kingdoms, to pluck up and to break down, to destroy and to overthrow, to build and to plant.
> 예레미야 Jeremiah 1:10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작업이 선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건설하고 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포한 이 메시지는 오늘 바로 그대로 가감 없이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선 "스스로 개혁"의 칼날을 뽑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써, 성령님의 감화감동을 받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하여 부화뇌동의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그 대신 "도전"하고, "교육"하는 자세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세상은 따라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끌어야 할 대상입니다.

둘째로,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건설하고 심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선 교회 내부에서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하여 교회가 앞장서서 새로운 사회 건설을 이끌어야 합니다.

하박국과 예레미야를 포함한 "모든 선지자들"의 영적 도전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승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가나의 혼인잔치 직후에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둘째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호산나 환영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짐승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언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온 세상은 "놀라고 멸망해야" 합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교회의 사역을 통해 세상이 놀라야 합니다. 교회의 손에 세속화와 우상들이 멸망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통하여 좁게는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인 사회가 놀라고 있습니다. 저들의 사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심각한 도전으로 인하여 멸망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으십시오.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분의 부활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사역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성전을 회복하신 주님께서 오늘 교회를 개혁하십니다. 개혁된 교회는 사회를 새롭게 하는 날카로운 타작기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문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있는 하나의 교회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약하나 예수님께서 권세 많으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명령을 듣고 순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기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새롭게 하옵소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금문교회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